

대림 제4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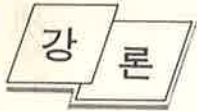
제1독서 : 이사 63, 16b-17, 19b; 64, 3-7

제2독서 : 1고린 1, 3-9

복 음 : 마르 13, 33-37

# 순정이

“그 때가 언제 올는지  
모르니 조심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마르 13, 33)



## 문지기의 삶



한정현 신부 / 원평 천주교회

‘깨어 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 생애에 걸쳐 지녀야 할 근본자세이다. 이러한 ‘깨어 있음’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인 대림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긴박하게 요구된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잠자지 않은 채 뜬 눈으로 지새며 깨어 있기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잠은 생리현상에 따라 주기적으로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재창조를 위한 충전 및 휴식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시는 주님을 온 생애에 걸쳐 ‘깨어 기다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적과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야간 경계에 나간 군인이 졸고 있다거나 야간 운행중에 운전자가 잠에 취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잠에 취해 있다는 말은 술에 취해 있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생명이 위협받는 위험스런 상황에 당사자가 직면해 있음을 상징한다. 하지만 오시는 주님을 깨어 지킬 것을 요구하

는 오늘 복음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술에 취한 듯 잠에 취한 듯 살다 가는 ‘취생몽사(醉生夢死)’가 아닌, 똑바로 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한다. 것처럼 깨어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끝내는 하느님의 자비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생명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깨어 있으라는 오늘 복음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서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에 대비하여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비유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깨어 기다리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가? 오늘 복음의 비유에 따르면, 주인은 문지기에게 자신이 언제 돌아오더라도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지키라고 당부한다. 여기서 문지기의 역할은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지켜 본 뒤 그를 맞이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지기가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문지기는, 집안 사람들을 깨워 이를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주인을 맞이하도록 대비시키는, 역할도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문지기는 자신부터 깨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집안 사람들이 돌아오는 주인을 깨어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도 마저 깨워 놓아야 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마르 13, 34 참조). 그러므로 깨어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문지기의 삶”처럼 이중의 자세를 갖춘 채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된다. 즉 먼저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하고,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남도 또한 깨워 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



## 선악이 모두 나의 스승

모 보 일(즈가리아)

벽에 걸린 열두 장짜리 달력이 한 장밖에 남아 있지 않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다. 내년 달력이 선을 보인지 오래다.

한 해 열두 달 삼백예순다섯 날 가운데 12월 마지막 한 달 서른한 날. 달력은 하얗게 눈덮인 산천,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담고 있다. 곧 거리에 구세군의 자선남비가 등장할 것이고, ‘캐럴’송이 울려 퍼질 것이다. 눈이라도 펄펄 쏟아지는 날이면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가 마냥 걷고 싶을 게다.

“꼭 어디라 할 것도 없이 칼만 대면 고품이 터져 나오는 판이니 과연 안색은 곳이 어딘지 묻고 싶은 심경이다.”

어느 수사관의 탄식처럼 요즘 우리네 정계(政界)·관계(官界)·경제계(經濟界)를 망라하고 어느 한 구석 썩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초 “나는 취임 이후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겠다”고 언명하고 칼국수가 청와대 오찬메뉴로 등장 매스컴을 뒤흔들었다. 현정권은 입만 열면 청렴과 도덕성을 강조 했다. 그리고 94년 봄, 현정권 출범 직후에는 공직자 재산을 공개토록 하여 상당수 고위 공직자들을 내몰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는 세상에 오는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면서 공직자 비리가 다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 지난해는 노동부장관이 산업은행 총재 재임시의 대출관련 비리로 구속되는 사태가 터졌다. 올들어 서도 한 달사이에 두 명이 현직장관이 비리와 관련돼 옷을 벗는 사건이 발생했다. 뿐만이 아니다. 서울시의 고위 공직자 비리사건과 서울은행장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성 대출을 해 주고 거액의 커미션을 받은 사건이 터지는 등 곳곳에서 부정부패 비리사건이 연달아 불거지고 있다.

검찰의 4·11총선 이후 부정부패사범 집중단속에서도 구속된 9백61명 가운데 27.6%인 2백65명이 공직비리로 나타나 부패의 정도를 짐작할만 하다. 도대체 개혁을 부르짖는 현정권이 뭘 개혁하고 사정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성역없는 비리척결’이라든가 ‘인사제도의 보완’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는다. 너무 많이 들어서 신불이 날 지경이고 입

으로만 개혁하고 안으로는 받아 챙기는 꼴이어서 믿기질 않는다.

돈받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대통령이 돈을 안받아도 장관이 받고 장관이 안받으면 그 부인이 받았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부끄럽고 참담한 심경”이라고만 하면 그만인가. 밤잠을 못자는 국민과 새로운 각오가 보이질 않는다.

법집행 또한 요상하다. 장관부인이 돈을 먹고 그 돈으로 남편 선거운동까지 했는데도 남편이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잡아떼니 무죄란다. 그말을 믿을 사람이 누구겠는가. 출처가 같은 돈을 받았어도 장관이 먹었으면 죄가 되고 국회의원이 먹은 것은 죄가 안돼 검찰이 조사조차 않는다.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법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말이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어느 교수는 공인(公人)이라는 이유로 구속되고 공인을 자처한 텔런트는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를 치다가 붙들렸는데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힘있는 자, 유명 인사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사법부의 법 적용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사정을 하고 비리를 척결할 수 있겠는가.

취사선택(取捨選擇)이면 선악개오사(善惡改吾師)라는 말이 있다.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올바르게 가릴줄 안다면 선과 악이 모두 내 스승이 된다는 뜻이다. 선만을 취하고 악을 과감하게 버릴줄 아는 참 지혜가 필요한 때다.

### 숲정이 산책



#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

— 송학동 천주교회 —

대림 제1주일은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된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신자들에게 오실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4주간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기도 한다.

늘 이맘 때면 각 본당에서는 가정방문과 특별 강론 시간을 마련하거나 본당 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쇠신시키고자 한다.

송학동 성당 방의성 신부님은 신자들의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돕고자 본당 피정을 마련하셨다. 피정은 지난 11월 15일에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가졌다. 오전에는 주부 200여명이 참석했고, 오후에는 직장인들과 남성들이 200여명, 총 4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강의는 강길웅 신부(광주교구)가 하였고, 식사는 본당 여성분과에서 준비해 주었다. 점심과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자매님들의 분주함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쌀쌀한 날씨에 어울리는 동태찌개가 일품이었다. 직장인들은 피정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서둘러 오는 발걸음에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에 충분하였다.

강길웅 신부는 「낭만에 초쳐먹는 소리」라는 책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 낯설지 않았다. 신부님의 유머와 열띤 강의는 신자들을 2시간 동안 사로잡았다. 2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본당 신자들은 이 시간에 자신들의 삶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어느 한 신자는 “마치 예수님께서 신부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라고 말한다. 또 한 형제는 “그동안 안일하게 살았던 삶이 필름처럼 스치고 지나가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라고 말을 맺지 못하고 만다.

이번 피정은 신자생활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신부님께서서는 우리 인생은 만남이라고 정의하셨다. 만남이 진실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낮추고 내려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셨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내려갈 때 하느님의 은총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고, 내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믿음에는 감사가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사실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점은 감사하는 자세에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름답고 흐뭇한 일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하든 안하든, 하느님의 섭리는 늘 함께 하셨다. 이러한 사실을 조금만이라도 의식한다면 우리의 자세는 달라질 것이다.

이 번 피정을 통해서 송학동 성당 신자들의 마음가짐은 새롭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놀라운 신비로 가슴 깊이 감사의 정이 솟아오르고 있다. 이 기쁨이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잘 맞이하고 찢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이 만남을 통해서 이웃을 만나고 활기찬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취재 : 편집부



특집

# 오실 주님을



박인근 신부 / 중앙 성당

나에게 대림절은 기다림이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삶에서 기다림이란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한 일인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 모르는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에 세례자 요한의 말을 떠올리게 된다. “회개하여라” 이 말씀을 새기면서 회개하고 보속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있다. 오신 예수님을 보고 세례자 요한처럼 “당신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입니까?”라는 의구심을 드러내면 어쩌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가다림은 만남을 전제로 한다. 만나기 위해서는 만나야 할 사람을 알아야 기다림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기다림의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 그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생기셨는지, 특징은 무엇인지, 무엇하러 오시는지, 그분은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이수일(베드로) / 삼천동 성당

대림절, 즐거운 성탄을 기다리는 시기이다.

우리의 구세주이시기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전, 절었던 시절에는 마냥 기뻐하기만 했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 당신께 많은 빛을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당신을 마음으로부터 오심을 기다리며 다짐해 본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웃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 보겠다. 보잘것 없는 작은 일에도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당신께서 보장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아기 예수님! 어서 오소서. 아멘.



강상근(미카엘) / 평화동 성당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그러나 그분을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으로 앞을 가린다.

길을 고르게 닦듯이 내 마음도 잘 닦아야 하겠다. 비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하고, 교만과 욕심으로 높아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하겠다.

사소한 일에 얼굴 붉히고 남의 잘못을 크게 여기고, 이루지 못한 것에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기에, 예수님이 찾아 왔어도 나는 그분을 알아 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번 대림시기에는 그분을 알아 볼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생활하고자 한다.

나를 찾아올 예수님의 겸허한 마음을 닦고자 노력하겠다.

### 아카데미 완구 전문점

- 베그 베레고 이태리제 전동 모터차 동차, 오토바이, 유모차의 개질 미국 유아용품 전문회사 전북총판
  - 리틀타익스, 스텝2 수입품 다수
  - X-마스 추리 도산매
- 군산역 앞

☎ (0654) 446-1853

### 로알석유

쌍용 석유, 경유 신속배달  
말통배달 · 보일러 청소

이 명 길(요셉)

☎ 245-9277, 3533  
휴대폰 011-654-9277

### 015 팔달통신

- 전북이동통신 팔달로 대리점 -  
휴대폰, 카폰, 호출기

오 현 중(스테파노)  
유 미 숙(마르타)

전주 오거리 국민우행 옆  
☎ 84-0015~6

### 영창피아노 전주 총 전시장 A/S 전문점

- 10개월 무이자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우대
- 신자분 특별우대

전상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구서증로타리 동서증권 맞은편

☎ 252-0103~4

# 기다리며



김옥희 수녀 / 인보성체 수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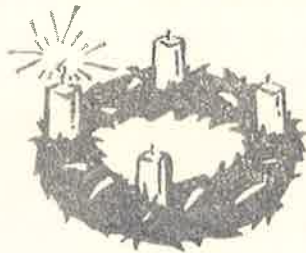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다?!” 엄청난 사건이다. 그러나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특별히 따로 준비할 것은 없다. 그저 몸과 마음 깨끗이 청소하고 특별 음식 몇 가지 준비해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며칠 머물다 떠날 손님이 아니라 함께 살 가족으로 오시기 때문이다. 살면서 마치 아이들이 부모를 닮아가듯 우리도 그분을 조금씩 닮아갈 것이다. 매일 매일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눈여겨 보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다면 말이다.

이렇게 오시는 그분이 정말 고맙다. 그리고 나도 그분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이웃의 가족이 되고, 이웃들도 나의 가족이 되는 그런 삶을, 그게 바로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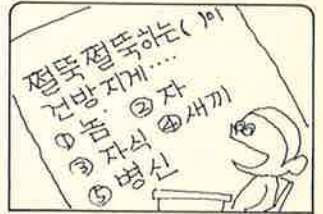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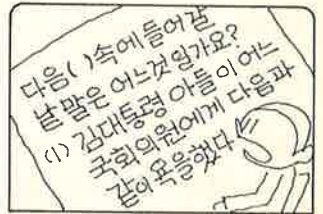


김인봉(대건안드레아) / 복자 성당

내동 말씀으로만 계시던 주님이 친히 오신다니 걱정이야. 이제껏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나에게 유리하고 편리할 데로 주님의 말씀을 걸고 다녔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젠 이렇고 그건 그렇다라고 하나하나 유권해석을 내리신다면 그 동안 나의 무지와 오해와 착각이 드러날텐데. 무엇보다도 걸다리고 속다른 나의 위선이 백일하에 벌거숭이 마냥 드러날텐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은 사찰나온 세리마냥 이것저것 시시콜콜하게 따지지 않고 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당신 품에 안으실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대문도 활짝 열어 놓고 등에 불도 밝혀야지.



## 요심이 (1214) 김병오



**우편으로 하는 성서공부**  
 시청각 통신성서 신입생 모집  
 신구약 성서입문(2년) ① 구비서류: 입학원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증명사진2매 ② 원서교부 및 접수: 12월~1월20일 ③ 원서대금: 5,000원 ④ 교부처: 전주 성바오로서원 및 교육부 ⑤ 문의: (02)987-4004, (0652)252-3398, P/C통신-천리안ID: UUS, 하이텔ID: tecla

광천수, 고랭지, 배추, 양건고추, 무 화훼조미료  
**김장주문 받습니다.**  
 포기10kg, 동치미10kg, 알타리10kg, 파, 깍두기, 고추김치, 고들배기  
 (원하는 날짜, 장소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주문처: 전주 212-7442, 군산 452-4939, 이리 52-5300, 순창 성가정식품 53-8040~1

**공인회계사 강기문사무소**  
 “교우 세무상담 무료”  
 강 기 문(마태오)  
 박 소 진(수산나)  
 경원동 파출소 앞, 소서빌딩3층  
 ☎ 87-7007  
 FAX. 87-7009

**(주)이삭온돌침대「파워스톤」**  
 수백방지 및 치료용 건강돌침대  
 (공업진흥청 전자파실험필, EMI)  
 박천운(베드로), 임선재(테레사)  
 전남북총판  
 ☎ (0652)251-9836~7  
 호출기 015-675-9824  
 휴대폰 011-651-7124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올겐,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 지도 담당  
 동서 관동로 다가교 입구  
 김태우(알폰소) · 황진숙(안젤라)  
 ☎ 88-7717~8

**그리스도 수도회 성소모임**  
 · 일시: 매주 첫주 토요일 오후2시 (중·고생), 매주 첫주 일요일 오후2시(대학생·일반)  
 · 장소: 은평의 마을 내 수도원  
 · 문의: (02) 357-9785 사제관 359-2927 사무실

사목단상

# 한 해를 보내며



이완재 신부 / 봉동 천주교회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심과 죽은 이들을 위한 위령성월을 보내고, 새해인 '대림시기'를 맞이하면서 정신간간 사람처럼 살아온 올 한 해를 되돌아 본다. 물론 아직 한 달간의 여유는 있지만 어차피 성탄을 맞이하기 위한 때일이 할 것을 생각하면 지금이 최적기이라 생각된다.

저희 봉동 성당은 올 한 해 최고의 해였고 가장 뜻 깊은 한 해였다. 작년 곡식이 익어 갈 무렵 90여 명의 신자로 시작했던 공동체가 1년을 맞이하면서 70여 명의 새로운 영세자를 탄생시켰다. 성전을 짓겠다고 기공식과 착공을 하였으며 또한 성전을 짓기위해 백여 명의 신자가 바자회를 했던 일들이 참으로 뜻깊고 하느님의 은총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들 중에서도 바자회는 너무도 많은 기억을 남겨 주었다.

타본당 형제, 자매 모두가 자기 집 일처럼 생각하고 늦은 밤시간까지 식구전체가 나와 도와주었다.

하루종일 설거이를 도와주고 간 대전의 형제, 3일 동안 아무 말없이 한 손에는 집계를 들고 한 손에는 봉투를 들고 쓰레기를 주어담던 형제 자매를 잊을 수가 없다. 참으로 고마운 형제 자매로 기억하고 있다. 또한 마음을 뜨겁게 느끼게 하는 놀라운 체험은 각 본당마다 어려운 살림이지만 기꺼이 신자들을 보내 주었던 신부님. 티켓보다 더 많이 정성스럽게 도와주신 신부님. 매일같이 찾아와 노래도 들려 주고 코너마다 돌면서 격려해 주신 신부님. 앞가슴에 큼지막하게 커피라 쓰고 커피를 팔던

신부님. 밤늦게까지 본당식구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던 수녀님의 모습 등은 형제적인 사랑을 느끼기에 충만한 체험이었다.

저는 우리 신자들의 헌신적인 봉사 또한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바자회, 티켓 한 장 더 팔기위해 무릎꿇고 애원하던 형제, 만여 명이 먹을 밥을 받아 부르터지도록 해내던 자매, 밤을 세워가며 뒷정리 하고 기름에 닭을 튀기던 형제 등, 정말 모두에게 고개숙여 감사를 드리며, 하느님의 사랑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호사 다마라 할까 아니면 너무 행복한 기억 속에서 자만에 빠질 것을 염려해서일까, 4년 전 한제단에 엮드려 봉헌된 삶을 살자고 다짐했던 동기신부(조장례 신부- 부산교구)의 죽음은 마음 한 구석에 아픔으로 기억되어 진다.

참 좋은 친구였는데.....

“나는 괜찮다. 형은 잘 살아라”라는 친구 신부의 유언처럼 새해는 잘 살기 위해 다짐한다. 여기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마태 25,40) 몸과 마음을 향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성전을 신축하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저희들을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하느님의 은총이 모든 가정에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전신축에 도움 주실 분  
우체국 400507-0081872 이완재

10년 전통의—  
**선경 컴퓨터 타운**  
삼성, 삼보 및 SKC 컴퓨터 총판  
이 병 균(프란치스코)  
정 미 선(글 라 라)  
보험청구 가능한자 및 아르바이트생 구함  
(평화주공 1단지 입구)  
☎(代) 231-2237

**LG 에어컨**  
에어콘·온풍기·공기정화기·제빙기·  
업소용냉장고·중앙집중식 냉난방  
97년도 신제품 에어컨 예약중  
15%할인+10개월 무이자 할부  
원 승 연(도밍고)  
백제로 빙상경기장 맞은편  
☎ 241-2000, 227-0902

**월드커튼 상사**  
원단, 부자재 도매  
각종 커튼 전문  
노 길 환(요 한)  
윤 정 희(그라시아)  
남문 코요름상가 앞  
☎ 231-5857~8

국가대표 출신  
**세심 검도 체육관**  
사회체육 3급, 경기지도자 2급  
(문체부정관)의 국가공인 검도장  
김 태 경(벤첸시오)  
☎ 72-8009(전북의대 입구)  
223-6655(효자동 서부시장 입구)

# 교구소식

## ❖ 쌍치공소 봉헌식

- 때 : 12월8일(일) 오전 11시
- 장소 : 쌍치 공소

## ❖ 재무평의회

- 때 : 12월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교구청

## ❖ 사회복지 월례미사

- 때 : 12월2일(월) 오전10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 ❖ 신학생 부모 모임

- 때 : 12월8일(일) 오전10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 ❖ M·E 64차 주말

- 때 : 12월6일~8일
- 장소 : 천호피정의 집

## ❖ 성모기사회

- 때 : 12월7일(토) 오전10시
- 장소 : 효자동 성당

## ❖ 전주 중앙이사회 월례회의

- 때 : 12월8일(일) 오후 2시
- 장소 : 동산 성당

## ❖ 축! 영명

3일(성프란치스코 사베리오) 고경훈, 주목성 신부님

## ❖ 천호피정 안내

- 때 : 12월3일(화)
- 주제 :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 강사 : 김동준 신부

- 때 : 12월14일~15일
- 주제 : 이 시대의 신앙생활
- 강사 : 김진중 신부
- 문의 : 73-6600

## ❖ 광주 평화방송(FM 99.9MHz)

- 생방송 스튜디오 99.9(월~토, 오후 3시5분~4시) 시사성이 강한 구성 프로그램. 600자 칼럼, 오늘의 토픽, 세상이 보인다, 스튜디오 초대석, 정보마당, 환경을 말한다, 농사 및 기상정보 등 우리 사회의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
- 방송교리(월~토, 오전11시50분~12시, 오후 7시50분~8시(제) 카톨릭 교리와 사회적 가르침을 소개하여 가톨릭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에 응답.

## 성소모임

### ❖ 성바오로딸 수도회

- 때 : 12월1일(일) 오후2시
- 12월2일(월) 오후 7시
- 장소 : 성바오로 서원
- 문의 : 252-3398 (수시로 성소상담)

## ■ 권해드립니다 ■

· 피에르파올라 타칼리티 / 김흥래 바오로딸 / 5,500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가톨릭 교회 내의 쇄신과 개혁을 주도한 교황 요한 23세의 사상 선집이다. 이 책은 시대의 징표에 항상 주의하면서 교회가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쇄신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진지한 이상을 살다간 하느님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충고와 가르침을 듣게 해 준다.

##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겨울철 실내 공기오염 이렇게 막읍시다

기온이 떨어짐에 따라 닫힌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다 보면 목이 칼칼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실내의 공기중에 있는 먼지 같은 것을 들며마셨기 때문입니다.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를 시켜주면서 실내 공기가 더러워지는 원인을 파악하여 막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실내에 들어갈 때에는 옷의 먼지를 깨끗이 털고 들어 갑니다.
- 실내에는 먼지와 더불어 해로운 공기(나쁜냄새, 가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에도 환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삼가하도록 권합니다.
- 집안의 먼지는 걸레로 닦으며, 담요나 이불은 밖에서 자주 먼지를 털어 냅니다.
- 새로 지은 건물에서는 환기를 더 잘 시켜야 합니다.

### 치질전문치료

##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75-0550

###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어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국비생 모집·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 엄마방

이유식, 건강식, 채식식, 영양식  
상담환영·신속배달  
장계수(노벨도)  
서주화(유리안나)  
중앙상가 2층 농협수퍼 입구  
☎ 75-6640  
호출기 : 012-663-8284

## 코코드라이크리닝

배달전문 세탁소  
우수선, 특수복 제작 및 커튼맞춤,  
모시옷 제작, 양복드라이  
심형섭(이시도로)  
숲정이 성당 사거리 문화일보 앞  
☎ 251-3229  
호출 : 012-677-5433

## 아카데미 완구 전문점

· 베그 베레고 이태리제 전동 모터차  
동차, 오토바이, 유모차의 게릴 미국  
유아용품 전문회사 진복출판  
· 리틀타익스, 스텝2 수입품 다수  
· X-마스 추리 도산매  
군산역 앞  
☎ (0654) 446-1853

## 로코코 인테리어

실내장식, 개조공사, 불박이(거울)장, 마루판, 중문(엠텍, 베벨드), 주문가구, 철공사, 선반, 보조기, 건조대, 욕실장, 커튼, 버티컬·전화상담환영  
서원식(야고보)  
서신동 동사무소 뒤  
☎ 78-0190~1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노송동** 주임신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범영배  
F A X 82-9664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대림 제1주일(나해시작) : 대림절을 뜻있게 보냅시다!  
1. 대림절 사랑의 성금 접수 : 사무실  
2. 본당 판공 일정 : ①10일(화)~13일(금) 후 3시~5시 30분  
②17일(화)~20일(금) 미사 후  
※사무실에서 97년도 교무금을 신입하시고 성사표를 가져가십시오  
3. 사목회 상임 : 4일 후 7시 4. 성시간 : 5일 저녁미사 후  
5. 병자봉성체 : 7일 ※사무실에 신청 바람  
6. 97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 각분과 부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 제출 바람  
7. 본당살림이 어렵습니다. 교무금및 주일헌금 납부에 관심과 협조 바람.  
8. 교육관(회합실)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꼭 꺼주세요  
9. L.M 연차 총 친목회 : 7일 후 7시 ※전단원 참석바람  
10. 축 / 혼인 : 8일 12시 신랑-노병철(벨라도), 신부-김신옥  
11. 모임 : ①울트라야, 기우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성심회 정기총회, 자모회-4일, 어머니미사 후  
③반희장 모임-6일 전 10시 30분  
④장우회, 대건회-8일 공식미사 후  
12. 금주전례 : 새벽-중노1구역, 저녁-중노2구역  
공식 안내-장우회, 해설-최광성, 독서-①이영관 ②서성남  
신자들의 기도-정영덕, 문화형, 봉헌-박태부 부부  
13. 차주전례 : 새벽-중노3구역, 저녁-중노4구역  
공식 안내-대건회, 해설-진경숙, 독서-①노광용 ②윤경자  
신자들의 기도-서용문, 정경옥, 봉헌-전도열 부부  
14. 청소 : 금주-중노 21, 22반, 차주-중노 23, 24반  
□지난주봉헌금 : 1,017,800원 □교무금 : 2,098,000원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점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박상기

1. 대림절 신앙 강연회 : 6일(금), 후 7시 30분  
2. 성소후원회비 납부의 날 : 오늘입니다.  
3. 다음주일은 인권주일 : 2차 헌금 실시  
4. 성서 교실 : 3일(화) 신명기 12~26장  
5. 성체 강복 : 5일(목) 저녁미사 후  
6. 성탄 판공성사 : 11일(수) 다가동, 고사동, 12일(목) 태평동, 기타동  
13일(금) 진북동, 완산동, 14일(토) 중앙동, 신일반  
15일(일) 학생, 직장인  
7. 97년도 부활 때 영세할 예비자를 인도합니다  
8. 감사합니다! : 대건회에서 패스 기증  
9. 금주모임 : 성우회, 대건회, 사목회  
10. 주간모임 : 구역분과회-2일(목) 10시  
여성분과회-7일(토) 10시  
11. 차주모임 : 요세희, 꾸리아, 청년회  
12. 금주전례 : 해설-최난희, 독서-전창배 부부, 봉헌-송기봉 가족  
13. 차주전례 : 해설-최유남, 독서-최정환 부부, 봉헌-이현기 가족  
14. 성당청소 : 7일(토) 평화의 오후pr, 천사의 오후pr.  
□지난주봉헌금 : 733,100원 □교무금 : 2,201,000원

**상관** 주임신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김범영  
F A X 85-6652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강덕용

- ◎오늘은 대림 제1주일 :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합니다.  
◎금년 교무금을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주모임 : 요세희, 동정녀들의 모후Cu.  
2. 차주모임 : ①안나회  
②장년회-18일(수) 후 7시, 이순기형제 자택  
3. 장년회 임원선출 : 회장-황상호(안드레아),  
부회장-강재석(바로로), 총무-최원규(말뎡)  
4. 가정방문 및 판공성사 : 2일-색장, 3일-공기, 서당, 4일-하신, 상신,  
원신, 5일-수월, 마치, 6일-묘동, 원의암 계획, 10일-백암, 신흥,  
11일-어두리, 12일-내정, 13일-남관, 기타지역  
5. 11월 위령미사봉헌 : 구세주의모친, 성심하신동정녀, 천사들의모후,  
황금의 궁전, 신비로운 장미, 평화의 모후, 바다의별, 셋별,  
모든 성인의모후pr.  
6. 성소후원회비납부 : 세대별로 1천원-구역장님께  
7. 성당청소 : 금주-사랑하을 어머니pr.  
차주-셋별pr.  
9. 금주전례 : 해설-이훈봉, 독서-①남현준 ②김금자  
봉헌-강재석 가정  
8. 차주전례 : 해설-최원규, 독서-①박귀철 ②송정자  
봉헌-성대적 가정  
□지난주봉헌금 : 370,000원 □교무금 : 217,000원

**서학동** 주임신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F A X 86-4929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12월 8일은 본당의 날입니다.  
1. 공동미사 및 나눔 : 8일(일) 전 10시 30분  
연차총친목회 및 기쁨잔치 : 8일(일) 후 1시  
※전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 : 사무실  
3. 97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 각 분과 및 단체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무실에 제출 바람.  
4. 초중고 학생 참여 예절 및 고백성사  
①중고등부-7일(토) 후 3시  
②초 등 부-14일(토) 후 5시 30분  
5. 예비자 교리 안내 : 매주 수요일-후 7시 30분, 예비자 교리실  
매주 수요일-후 5시 30분, 예비자 교리실  
※예비자분들은 빠짐없이 출석 바람  
6. 금주모임 : ①반희회-1일(일) 공식미사 후, 유아방  
②꾸리아-1일(일) 후 2시, 강당  
③사목회-3일(화) 후 8시30분, 회합실  
④자모회-5일(목) 레지오회합 후, 회합실  
7. 차주모임 : ①프란치스코삼회-8일(일) 후 2시, 강당  
②성심회-11일(수) 전 10시 30분, 회합실  
③울트라야-12일(목) 후 7시 30분, 회합실  
9. 청소안내 : ①금주청의 동정녀 pr.  
②차주-사랑하을 어머니 pr.  
□지난주봉헌금 : 1,143,400원 □교무금 : 2,081,000원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송영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장환

1. 금주모임 : ①세속군라라 형제회-후 1시 30분 ②에덕의 모후 꾸리아-후 3시  
③성 가정회-11시 ④요세희-후 6시 ⑤울트라야-후 8시  
2. 주간모임 : ①단불회-3일 전 10시 ②베아타회-4일 전 11시  
③엘리사벳회-4일 전 11시 ④여성단체임원모임-4일 후 3시  
⑤성모성심회-5일 후 3시  
3. 성체 강복 및 조배 : 5일 전 10시 4. 병자 봉성체 : 6일 후 2시  
5. 레지오 단원 연차 총 친목회 : ①꼬미시유 직속 pr., 일치의 모후 꾸리아 : 7일(토) 후 3시 ②바녀의 성모 꾸리아, 에덕의 모후 꾸리아 : 14일(토) 후 3시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은 적극 참여 바람.  
6. 성탄 판공 성사 안내  
일치-3일~15일 전 10시~12시, 후 2시~5시, 저녁미사 후  
-판공성사표 배부 및 면담-본당 사무실  
-고백소-성당안, 사랑방  
-구역일정-①전동 전 구역 및 기타 동반-3일(화) ②동교동 전구역-4일(수) ③풍남동 전구역-5일(목) ④동원산동 전구역-6일(금) ⑤조동부 주일학교(미사전후)-8일(일) ⑥남소중동 전구역 및 기타 동반-10일(화) ⑦서교동 서원산동 전구역-11일(수) ⑧경원동 전구역-12일(목) ⑨중앙동 전구역 및 기타동-13일(금) ⑩중·고·등부 학생(미사 전, 후)-5일(일)  
7. 밤·은풍기 기증 : 극성호(스테파노)-삼백만원 ※감사합니다.  
8. 감사헌금 : 임명철(세바스찬)-오만 ※감사합니다.  
9. 차주모임 : ①자모회-전 10시 ②사목회-후 8시 ③일치의모후 꾸리아-후 2시  
□지난주봉헌금 : 2,188,240원 □교무금 : 4,090,000원

**평화동** 주임신부 232-5001 수녀원 232-5004 주임신부 이삼섭  
F A X 232-5003 사무실 232-5005 사목회장 황의욱

- ◎평화성전신축 봉헌을 연말까지 마칩시다.  
◎레지오 연차 총 친목회 : 9일(월) 7시 30분  
◎영세식 : 5일 목 전 10시  
◎예비자 입교식 : 97년 1월 7일 후 8시  
각자 한사람씩 예비자를 봉헌합시다  
1. 오늘모임 : ①평화의 여왕Cu-2시 30분 ②성지회-공식미사 후  
2. 주간모임 : 구역반장-화요일 10시 30분  
사목회-화요일 저녁미사 후, 성체강복-목요일 8시  
부녀회-금요일 11시 30분, 성모회-토요일 전 10시  
3. 세대주 면담(판공성사표와 시험문제지 받아주세요)  
시간 : 10~12시, 2시 30분~5시, 7~9시  
3일(화) : 1, 2, 3, 4, 5구역  
4일(수) : 6, 7, 8, 9, 10구역  
5일(목) : 11, 12, 13, 14, 15구역  
4. 성전 신축 봉헌금 신입구좌 (1구좌 100만원)  
입헌자 1, 익명 3, 박태호 0.5  
소계 : 4.5구좌 총계 : 504.9구좌  
5. 성전 신축 봉헌금 납부 : 김정수 10만, 김봉신 3만, 박준상 3만,  
이미자 100만, 문영실 3만, 최순복 3만, 손영순 20만, 유옥춘 9만,  
장기준 1만, 권학렬 100만, 반강남 50만, 서명례 10만, 김봉근 5만,  
김광재 30만, 김수남 3만, 박경자 10만, 홍성순 50만  
소계 : 4,100,000원 총계 : 83,292,820원  
□지난주봉헌금 : 1,675,850원 □교무금 : 2,237,000원